

I. 서 론

1. 연구배경

1997년 말 금융위기 직후 폭등하였던 시장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거쳐 현재의 저금리 상황으로 이어졌다.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저금리 상황은 계속 지속 또는 일본처럼 현재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리가 다시 반등하여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두 자리 수 금리시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상품 계약 시 약속한 예정이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받아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시장금리의 변동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특히 저금리에서 고금리로의 변동보다도 고금리에서의 저금리로의 변동은 보험회사의 경영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 약속한 고금리에 대한 부담은 회사에게 심각한 이차역마진으로 돌아와서 재무건전성 악화로 연결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1980년대 예정이율이 6%대인 고금리 상품을 판매하였으나 1990년대 초 저금리 상황으로 인해서 이차역마진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한 경영부실로 수많은 보험회사들이 결국 문을 닫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고 말았다.

이에 현재 저금리상태로 돌입하여 이차역마진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이차역마진을 보이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미 심각한 상황에 돌입하여 많은 보험회사들의 파산으로 이어진 일본 및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그들이 대응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보험업계의 차원과 정책적인 차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김종국, 도춘만(2000)은 장기금리의 하락에 따른 이차역마진 발생을 이미 예측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자산운용 방안과 리스크 관리기법에 관해서 방법을 제시하였다. 류건식, 이도수(2001)는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리스크에 관한 연구에서 기준금리는 안정성, 장기성, 정확성, 대표성 등의 선정기준과 실제 자산운용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성욱(2001)은 이차역마진으로 인해서 일본보험회사들(닛산생명, 도쿄생명, 다이이치화재)이 파산한 사례를 분석하였다. 오창수(2004)는 보험상품 포트폴리오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수익률, 사업비, 사망률, 해약률, 할인율 등에 대한 기본가정을 기초로 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각각의 요소들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경우의 이익의 변화도 고찰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익의 현가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유계약의 예정이율이 투자수익률에 비하여 높게 설정되어서 발생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이원돈(2003)은 저금리 시대로 인한 이차역마진의 현상에 대해서 예정이율, 상품운용, 자산운용의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였고 더 나아가서 외국의 대응사례에 관해서 조사하였다.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1998)은 예정이율 체계의 문제점 분석에 기초한 예정이율체계의 과학화 및 현실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생명보험의 고유금리체계의 확립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자산운용수익률과 예정이율의 관계를 통해서 기준금리 및 그 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봉주, 박동규(1999)는 손해보험사들이 금리리스크에 어떻게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손보사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현재 이차역마진의 현황 파악을 기초로 수행될 것이다. 현재까지 연도별 이차역마진 현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보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향후 예상되는 이차역마진 상황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한편으로는 이차역마진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현재까지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국내 대응 사례와 국외 대응사례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 본다.

대응방안에서는 보유계약과 신계약 측면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상품 측면과 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